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2월 24일(주일) 제1177호



사진은 지난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칸타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전야행사 ... 칸타타, 콘서트, 경배와찬양 거리행진 등
내일은 성탄축하예배 및 CGNTV 드라마 '다시 봄' 상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은 캠퍼스별로 성탄축하 전야행사가 이어진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주찬양 찬양 사역팀, 양재 온누리교회 1~4부 예배에서는 뮤지컬찬양사역팀이 칸타타를 한다. 서빙고 열린 새신자예배(오후 7시)에서는 2017 성탄콘서트 'Home'을 개최한다.

부천은 오후 7시 예배에서 차세대 특순이 있고, 평택은 오후 3시 본당에서 김희석 교수(백석대) 초청 크리스마스 콘서트 '쉽'을 개최한다. 인천은 오늘과 내일 '사랑애 물건나누기' (안 쓰는 물건 기증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행사를 열고, 양지는 오늘 오후 3시 소망교도소에

서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7시에는 성탄전야예배를 드린다. 강동은 어제(23일) 나비쇼핑몰 앞에서 전도축제를 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성탄축하예배 및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다시 봄'을 상영한다. CGNTV가 제작한 단편드라마 '다시 봄'은 목사였던 아버지의 사고 이후 교회를 떠났던 주인공 보라(배우 황선화)가 19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내용이다.

성탄축하예배는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오전 9시와 11시 30분, 인천 오전 11시, 대전 오전 9시,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전 11시에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드라마 '다시 봄' 상영은 서빙고와 양재 오후

2시, 부천 오전 10시 15분, 수원 오후 2시, 인천 오전 10시, 대전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오후 12시 30분, 평택 오후 1시, 강동 오후 1시 30분, 양지 31일 오후 9시 30분에 한다. 오후 10시 40분 CGNTV에서도 상영한다.

경배와찬양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청 앞 광장, 대학로, 명동 등지에서 '2018 한국 교회 성탄절 큰잔치 거리행진'을 한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월 1일 새벽 3시 30분까지는 임진각에서 '2017-18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모임'을 개최한다.

차세대 꿈이자라는땅은 25일 오전 9시와 11시 30분 서빙고 경찬홀과 양재 기쁨홀에서 슈퍼북 애니메이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감상하며 성탄예배를 드린다.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송구영신예배 및 신년예배 일정이 발표됐다.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예배시간은 서빙고, 양재 오후 7시, 9시, 11시, 부천, 수원, 인천 오후 9시, 11시, 대전, 남양주, 평택, 강동, 양지 오후 11시다.

신년예배는 2018년 1월 1일 각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예배 시간은 서빙고, 양재 오전 9시 30분, 11시 30분, 부천 오전 9시, 수원, 대전 오전 9시 30분, 인천 오전 11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송구영신예배·신년예배 일정

캠퍼스	송구영신예배	신년예배
서빙고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양재	오후 7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30분
부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수원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인천	오후 9시 오후 11시	오전 11시
대전	오후 11시	오전 9시 30분
남양주	오후 11시	-
평택	오후 11시	-
강동	오후 11시	-
양지	오후 11시	-

2018년 선교헌금 작성

1월 7일과 14일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1월 7일과 14일 주일 예배에서 '2018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실시된다.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중보기도, 재능기부 신청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선교헌금 작성 방법은 헌금봉투나 자동이체(CMS) 중에서 선택

하면 된다.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 생년월일, 증액 금액 등을 빠짐없이 기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중보기도와 재능기부로도 선교헌금 작성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2-3215-3616

평택 온누리교회 오늘 창립 13주년

오늘은 평택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이다. 이를 기념하는 콘서트 '쉽'이 오후 3시 본당에서 막 오른다. 김희석 교수(백석대학교)가 출연한다.

평택 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에 창립했다. 평택 지역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을 섬기고 전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이슈진단

‘수도 예루살렘 선언’의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 닦는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선언이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할 것 없이 반기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국가와 국제사회에서는 반기를 들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질 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2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수도 예루살렘 선언 철회’ 결의안 표결을 실시했는데 128개국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KIBI 송만석 장로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송만석 장로
(KIBI대표)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3000년 전 다윗 왕때부터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정했다. 하지만 UN은 예루살

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어느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지내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하고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선포했다.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의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파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미국의 국회, 야당, 여당, 대통령 후보는 모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실제로 이행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내년이면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도 예루살렘 선언을 독립 70주년 최고의 선물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대인 랍비 20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썼다. 현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팔레스타인들과 주변 국가들이 발끈해서 일어나고 있다. 조직적인 테러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의 수도 예루살렘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통과됐다. 이번 선언을 통해 비단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난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2017년 이스라엘에서 열린 ‘살롬 예루살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선언과 함께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문제가 대두됐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지 아니면 성경을 해석해서 믿을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보통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은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이다. 지난 1900년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성격을 띠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 이스라엘도 있다. AD 70년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땅 끝까지 흘러갔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다. 성경 속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과 같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목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려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늦어도 2020년이면 모든 민족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려

면 만족해야 하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네가 바로 말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마 23:39).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때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고 하셨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보좌가 있는 도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윗의 이름으로 세운 도시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건 성경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들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들고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상처를 입을 것이다”(스가 12:3).

마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못 오시도록 전략을 쓸

것이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 때도 멸절을 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왔고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에는 단 두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명의 성도와 400여 개의 교회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들 스스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수많은 믿는 사람이 생겨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야 한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상하게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예수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되게 하소서, 주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시편 122:6-7).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만큼 복잡한 도시가 없다. 바람 잘 날이 없다. 아랍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안녕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요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났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 달린 것, 부활하신 것도 보았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 질문하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베드로는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다.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이다. 갈수록 험난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싶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창세기 17:15~21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오해는 아마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인 듯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오해는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 인류에 공헌을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그의 출생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가 종종 발견됩니다.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로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신성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배심에 젖어서 그분의 탄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

사복음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읽어보면 익숙한 장면에 가려져서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의 출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마가 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복음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계신다”는 표현은 어느 날부터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분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이 세상이 존

재하기 이전부터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태어났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요 17:5).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요 8:56).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지만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이요?’”(요 8:57).

지금까지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려고 기대하고 기다렸고 기뻐했다”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순간적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50세도 안 되었는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늙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잡아야 40세도 안 되었는데’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0세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년은 더 늙어 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요 8:58).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진

실로’는 원어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시면 그 뒤에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앞과 뒤에는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주장,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표현 한 마디 한 마디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신 일관된 흐름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보리라고 기대했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일까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자식을 낳기 위한 사건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주셔서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들 부부의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처음에는 양자를 들이는 방법으로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맞으려고 했습니다(창 15장).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의논해서 그 다음 선택한 방법이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는 불신앙의 방법입니다. 이 행동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이 태어났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중동

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네 하나님 그리고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창 17:6~7).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을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선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번성한 후손 다윗을 통해 나라를 세우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과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의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육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실 때 언제나 영원한 언약이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분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 역사와 시간,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자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17~18절)

기획

■■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크고 좋은 소식 ...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기쁘고 소중한 날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 화려한 장식, 흥겨운 캐럴, 선물 주고받는 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황재명 목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를 고찰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중 최대의 사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2천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은혜 베푸신 새로운 언약의 서막을 알린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와 AD(Anno Domini: ‘그리스도의 해’라는 라틴어)로 나누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방박사와 아기 예수 탄생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모여 있는 모험을 흔히 볼 수 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었던 기록이 없다. 동방박사를 지칭하는 헬라어 ‘magos(점성가 혹은 천문학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적어도 둘 이상)이 세 가지 예물(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마 2:1~11).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알았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은 동방에서 별(왕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별)을 따라 아기 예



수께 나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마 2:2).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란 마치 ‘다윗 후손’이라는 명칭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의미하듯,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가리켰던 호칭으로 추정된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왕이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적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이다. 동방박사들은 세상적 통념과 이성적 판단에 따른 오류를 거친 후에 서야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 말씀 즉, 구약에 기록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다(마 2:4~6, 미 5:2).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보면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위에 빛이 비쳤다”(사 9:2)며 장차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 이 메시아 빛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고대 근동 점술가 발람(민 24:17)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한

빛(“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었고, 바로 그 별이 2천년 전 동방박사들이 본 별이었던 것이다. 성경이 예언했고 이방 점성가들이 증명한 그 별이 바로 유대 청년 예수께 성취되었음을 사도 요한도 증거하고 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요 1:9~11).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거나 경배하지 않았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 헤롯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헤롯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자리가 도전을 받고 위태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지니고 있던 헤롯은 전에도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죽였던 자였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도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마 2:3)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방박사들을 따라가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지 않았다. 단지 큰 소동만이 예루살렘 성내를 가득 채웠을 뿐이다.

오늘날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에 큰 소동이 일어난다.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럴 송, 반짝이는 조명으로 치장한 거리들과 빌딩들이 세상적 화려함과 위대함을 잔뜩 뽐내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한적한 마을보다는 변화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의 소동은 더 강하고 크게 메아리치며 일어난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지 소란스러움의 회오리만 있을 뿐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은 없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세상은 ‘크고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허탈감과 공허함의 숙취 속에 또 다른 세상적 소동을 준비하며 나아간다.

헤롯 왕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헤롯과 동방박사들에게 그 예언을 알려주었지만(마 2:4~6),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성경 지식의 뛰어난만 보여주

었을 뿐이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소망의 박동 소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단지 소동함과 성경 지식의 겉모습만 있었지 내면의 감동과 감격이 없었다. 오직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동방박사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복음을 단순히 듣거나 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진리는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던 반면, 성경은 잘 몰라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베푸는 구원의 능력을 믿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세리, 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확증하고 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소식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그리스도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첫 소식은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눅 2:8). 궁전에 있던 왕족도,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회당에 있던 랍비나 바리새인도 아니었다. 밤에 외로이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다가갔다. 오늘날로 굳이 말한다면 밤에 아파트를 지키며 섬기는 경비원들, 밤에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어둔 밤 도로나 터널을 보수하는 작업자들 등 비록 삶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되었다(사 61:1~2).

성경은 복음의 첫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고용된 목자들인지 아니면 양들의 주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아마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가 선택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참 목자로 오셨다. 참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선택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참된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

목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언제 들었을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크고 좋은 소식은 하루 세 번 전해진 유대인의 기도 시간(종교적 시간)도 아니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세상적 시간)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던 한밤중에 선포되었다(눅 2:10). 복음이 한밤중에 선포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에서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한밤중에 오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는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졸려서 모두 잠이 들었다가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는 소리에 깨어났다(마 25:6). 신랑이 도착했을 때 열 처녀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 그때, 열 처녀가 모두 깨어났을 때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마 25:1~13). 누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었는가?

오늘도 2천 년 전 선포된 ‘크고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복음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사실로 선포되고 있다.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 이에 대해 누가복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눅 2:14)를 선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림’은 본래 하나님께 없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분의 것을 당연히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극히 높은 하늘보좌에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한마

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나)가 창조된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 43:7).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참된 평화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다(눅 2:14). 이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눅 2:10)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암시한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부터 그의 백성들과 평화의 언약을 체결했다(민 25:12, 사 54:10, 겔 34:25, 37:26~27, 말 2:5). 성경에 기록된 모든 평화(shalom)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언급되고 있다.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

32:17)인 것이다.

베들레헬은 어디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장소는 어디일까? 오늘날 베들레헬에서 동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목자들의 들판’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다(현재 아랍인의 마을 벳사후 지역). 전승에 의하면 이 들판이 바로 2천 년 전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곳으로 알려져 있다. 베들레헬은 역사상 아주 오래된 도시로, 성경에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낸 곳으로 처음 소개되고 있다(창 35:18~20). 무엇보다 베들레헬은 다윗의 조상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전개된 배경이 되는 곳이며,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삼상 16:1~3). 이 베들레헬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아주 오래전(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언하였던 것이다(미 5:2).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헬에서 탄생하셨으며, 그 베들레헬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크고 좋은 소식을 들었고, 메시아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은 그 들판의 어느 지경을 지나갔던 것이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그리스도가 탄생한 성지 베들레헬에 아도니스 신전이 세워졌으나 주후 4세기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그 우상 신전은 허물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쓰였다. 이 교회가 바로 기독교 성지순례지 중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예수탄생기념교회’이다.

이스라엘의 한낱 보잘것없었던 작은 마을 베들레헬, 그 베들레헬은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묵상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며 증거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맞이한(또는 맞이할) 베들레헬은 어디인가? 그 베들레헬에 세상의 신전 아도니스를 세워놓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가?

130여년 전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 예언한 큰 빛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션에도 비추어 주셨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조션에 그 빛이 임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다(골 1:13).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세대는 가난하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30여년 전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을 점점 잃어가며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요 1:5)는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외침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해 메아리치고 있음을 들어야 한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불빛이라도 드는 거룩함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며 증거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베들레헬은 어디인가?

신전을 세워놓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가?

디로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롬 1:21~23, 시 106:19~20, 렘 2:11).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 우상을 좇아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로 내던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품어야 할 비전이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영광의 총만함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합 2:14).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종말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총만함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골 3:4). 그러나 지금 성화되어가는 인생 과정 속에서도 이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고 있는 중임을 기억해야 한다(고후 3:18). 성도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요 15:8).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면 결국 그리스도가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며(벧전 2:12),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롭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있다(살후 1:12). 지금 우리(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는 악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다(사 48:22, 57:21).

그런데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목관계이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양자 된 성도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롬 8:15, 갈 4:16).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친밀함의 깊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의 축복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즉,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비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후 5:18~19).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마 5:9)이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약 3:18), 그 의의 열매는 다름 아닌 평화(사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12월 16일 Sat 토요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고전 15:55~58

김영길 장로

창조, 구원,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창조는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 성경은 전부 믿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인 저는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봐야하는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가는 과학연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연구는 창조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하나

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죄를 용서 받으려면 누군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죄가 없고,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고 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가능하나, 어떻게 부활이 우리 안에 오냐고 묻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입니다.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어기면 영원한 영적 죽음이 옵니다. 이게 창조질서이고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발생한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점점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죄가 점점 증가하면 결국에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

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바꾼 것이 ‘썬트로피’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말세라고 합니다. 20세기에 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무질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힘에 힘입어 황폐한 것을 세우고, 다시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혼돈된 세계를 회복시키는 드라마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12월 18일 Mon 월요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롬 6:1~11

이재훈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공격, 유혹,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전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시험하거나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관계로 만난

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죽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죽음의 네 가지 상태를 말했습니다. 첫째, 타락 이전의 상태입니다.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타락 이후의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 죽음으로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넷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온전히 구원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시간

과 공간을 넘어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심판의 면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면은 부당합니다. 죄가 있는데 눈을 감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감으로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유혹에 반응하지만 죽은 자는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일어나지 않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곳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이 놀라운 비밀을 깊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12월 19일 Tue 화요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갈 2:20, 6:14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일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세상을 끝내고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신 죽음이고, 우리의 죽

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혜택을 누리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고후 4:10).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그분과 함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못 박힌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종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못 박힌 자로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우리도 끝까지 못 박힌 자로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프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인내함으로 못 박힌 자로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그때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못 박힌 자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20일 Wed 수요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골 3:1~2, 엡 2:4~7

이재훈 목사

성경은 계명과 약속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이 그리스

도의 것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 있는 생명과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 교환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위대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멸망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삶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한적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자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을 부인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은 하늘에 앉히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열매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계속 받고, 하늘의 것을 추구한 만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12월 21일 Thu 목요일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깰 것입니다

살전 5:5~11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언제 체험할까요. 우리는 이 능력을 깨어 있건 자고 있건 체험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미팅을 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약을 맺고 공부를 할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익숙해진 습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옛 습관과 함께 있다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특히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계관 속에 숨어 넓게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가장 무섭습니다. ‘기준은 내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고의 습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습관에 얼마나 물들어 있습니까. 수많은 욕심들의 종이 되어버린 옛사람의 습관들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방해합니다. 우

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역사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소원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선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시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옛 사람을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며 영적 싸움에 들어갑니다. 이 싸움은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깨는 순간 이 말 한마디를 생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새사람이 옛사람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말씀에 따라 행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새 생명은 새 능력을 의미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내어드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된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12월 22일 Fri 금요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골 3:3~4

이재훈 목사

이번 주 새벽기도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단계마다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할 영광입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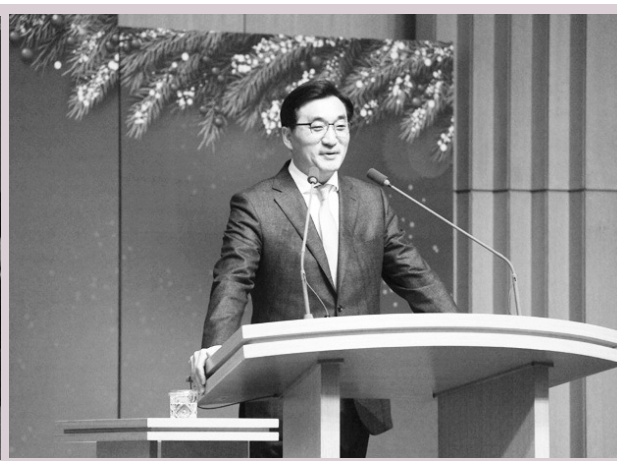
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의 뿌리가 잘려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영적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상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고, 고난을 이기며, 죄를 뛰어넘는 승리의 인생을 삽니다. 영적 생명은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믿을 때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리심을 받은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누리는 영광은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영광도 놀랍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그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기에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어떻게든 나타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감춰져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시험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춰진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춰진

생명이 온전히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멸시받고 천대 당했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생명의 정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동일하게 누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자신을 드리는 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영광의 축복입니다.



특별기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V)

인권 등 가치 개념의 젠더주의적 조작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오늘날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한국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누구나 보기에는 그럴듯한 인권 개념(예컨대 성소수자의 인권 등)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동성애 비판은 성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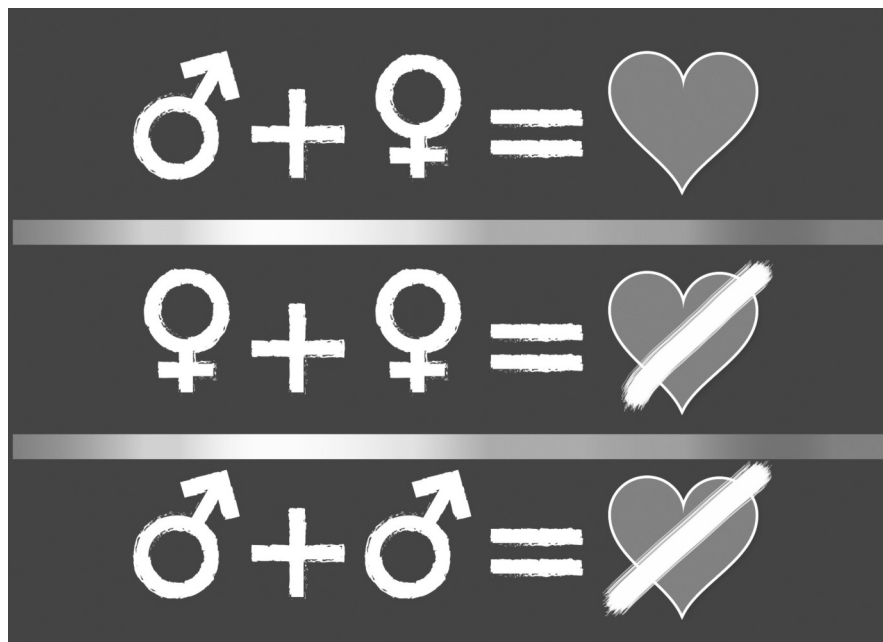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선전한다. 이들은 자유시민사회가 시민혁명을 통하여 쟁취한 인권, 자유, 평등 등을 사용하여 ‘동성애 인권’, ‘성 자유’, ‘성평등’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인권 옹호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실상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성다수자인 정상인들과 사회적 양심적 지식인의 비판의 길 자체를 막고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를 암암리에 시행하고자 한다. 필자는 8가지 관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조작 내지 왜곡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의 조작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 인권, 자유, 평등, 결혼, 가정 등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용자도 모르게 그것을 허위로 조작하고 있다. 정치통치자가 이런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선전이라고 한다. 조작의 교묘한 형식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언어가 어떤 세력에 의하여 그 집단의 유익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다수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될 때 그 언어는 조작된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 예가 ‘양성평등’을 대체하는 ‘성평등’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는 민주적인 의미인 ‘평등’을 ‘성’에다 적용시키는 것으로 외면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어느 특정 성에 편향 없이 평등하게 대하라는 좋은 뜻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평등이란 내용적으로는 양성을 부인하고, 동성을 인정하라는 의미로써 동성애 편향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성평등’이란 용어는 동성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수인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에게 불편, 불이익, 역차별을 가져다준다.

성(sex)이란 배타적인 성질을 갖는다. 성격이나 재능이나 부는 가진 자가 될 가진 자와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공유적이다. 그러나 성이란 아무나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은 성이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다. 이것은 창조주에 의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에 관한 전통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성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젠더주의자들은 인간이 자기 성을 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창조주가 정해진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요, 이를 부인하는 것이요, 신성모독이다.

이들이 말하는 젠더란 남녀 어느 쪽의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50종 이상의 사회적 성이다. 성에 평등이나 자유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성의 자유화에 의하여 사회가 문란해지고 청소년들은 순결을 상실하게 된다. 성 자유화란 성 해방을 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서구사회의 성 해방 물결이 한국에도 들어와 가정을 파괴하는 간통이란 죄는 우리 사회에서도 폐지되었다. 이는 성 사용에 대한 자유방임으로써 무책임한 결과와 성적 혼란을 초래하게 만든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 페미니즘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 구별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전통적인 가치인 순결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속박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

성에다 다양성 개념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함축성이 많은 본래 내용에 이질적 내용(트랜스젠더, 혼합성, 동성애, 이성애)을 도입하게 되면 전통적인 이해의 성 개념이 왜곡된다. 젠더가 되는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성이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이요, 이는 생물학적 성이다. 남성과 여성, 동식물에서의 암컷과 수컷은 창조주가 지으신 만물 번식과 생육의 원리다. 중성이란 없다. 혼합성이란 없다. 종의 다양성은 성의 다양성과는 다르다. 종의 다양성은 창조의 풍성함을 위한 창조주의 지혜이나 성의 다양성이란 성경에는 없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성만 있을 뿐이다. 종의 다양성에 적용되는 것은 성의 다양성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트랜스젠더, 혼합성이란 양성의 변태적인 양상으로 비정상이다. 이는 타락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비자연적이고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이들은 성에다 ‘다에인제(polyamory)’를 도

입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일부일처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다수의 남녀들이 동거하는 다에인제를 제안하고 있다. 다에인제에서는 부부 사이의 정절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인류가 여태까지 존립해온 전통적인 일부일처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다에인제 사회에서 가정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부모와 소속감에 혼란을 일으켜 가정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들은 동성애 반대자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 흡입, 폭력, 난동, 전쟁, 도둑질에 대해서 누구나 혐오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양심에서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이다. 동성애 행위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미풍양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하는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상인이 동성애에 관하여 거부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혐오증(phobia)’이라고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들의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독선이 깔려 있다.

전통 가치의 전도(顛倒)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性)과 관련하여 개인의 제약이나 의무 없는 절대적 자유를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방임주의로써 서구나 동양사회가 지녀왔던 전통적 양성 개념과 성에 대한 순결과 절제가 미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도(顛倒)시킨다. 우리 사회가 존재하려면 선과 악, 순리와 역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합의가 준수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붕괴된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사회적 전통 가치,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제도, 남녀의 구별, 성에 대한 순결과 절제 등을 사회적 억압의 산물로 보고 이에서 해방되고자 한다.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근본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다. 전통적 성가치가 무너진 사회는 젠더 무정부사회에 이르게 되며, 그 사회는 갈등으로 분열되어 존립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성교육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4학년 담임교사가 성관계 방법을 성교육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구의 초등학교 18명은 지난 2017년 8월 6일 인근 어린이집에 봉사하러 갔다가 충격적 영상을 봤다. 시체와 성행위, 남성 간 성관계 같은 내용이었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홍보 영상을 어린이집 원장이 보여준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받았다. 2017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수업 때 여교사가 서울 도심서 열린 쿼어 축제(성소수자 축제) 사진과 영상을 틀었다. 여교사는 축제에 스스로 참석하고 입었던 옷과 사진을 보여주며 레즈비언, 게이 같은 영어 단어를 가르쳤다. 이 학교 학생들 사이 요즘 유행하는 말이 “너, 게이냐?”라고 한다. 이 여교사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한남 총(한국 남자는 벌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교사가 자신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한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애 성교육은 쿼어축제 등에 영향을 받은 사례들이다. 전교조는 지난 9월 4일 학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등 성(性) 소수자 관련 교육을 하겠다는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최근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담은 성 평등·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연구, 수업,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이를 교육하겠다고 했다. 조직적으로 성소수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사춘기도 안된 학생에 교사의 편향된 생각 주입은 위험하다”고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성소수자 관련교육 금지하고 있다.

다양성 개념의 왜곡

오늘날 환경 파괴에 의하여 많은 동식물 종(種)들이 사라지는 생태 위기 시대에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개념이 되었다. 생물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 년 전부터 다양성 개념이 성소수자들에 의하여 사용되면서 이들은 성적 실천의 모든 타입(이성애, 동성애, 혼합성 등)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성 개념은 이타한 성 행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변경시키고 ‘강요된 이성애’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이성을 강요된 성 행위요 단조로운 성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성을 허용하여 단조로운

이성애의 속박에서 해방한다는 슬로건을 내 걸고 있다.

그러나 성이란 영역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이 자기 성을 결정한 다거나 결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창조질서에 맞지 않다. 이성애(異性愛)는 배타적이어서 파트너 서로 간에 헌신과 충절을 요구하나 젠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성애와 성적 지향은 파트너에 대한 충절로부터 이탈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탈이라는 용어를 거부한다. 이들은 규범이라는 용어를 거부한다.

젠더 주종자 반대자에 대한 역차별적 용어

‘섹스주의(sexism)’란 용어는 극단한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이 부르짖고 자주 인종주의 용어와 긴밀한 근접성에서 사용되었다. 섹스주의란 용어는 남자가 여성들을 섹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체계를 정죄하는데 사용되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젠더 성격과 이에 대한 긍정적인 보완성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섹스주의라고 낙인찍는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언급을 금기시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전제화하는 독단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이로 인하여 극단한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날 생물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뇌과학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차이의 원인을 더욱 자세히 기술하고자 결과를 연구하는데 저항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17년 6월 ‘생명 가정 호’ 세미나에 초청되어 방한한 독일의 여성 반동성애 운동가 가브리엘 쿠비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가 만들어놓은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책임감, 결혼의 서약을 무시한채 성행위 파트너가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비는 “이처럼 성욕 해소에 있어서 자율적인 개인이 창조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남자, 여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브리엘 쿠비가 경고하고 있는 바같이 “성욕의 극대화는 근친간, 수간을 뛰어넘어 어린이까지 성적 도구로 만들 수 있다.”

동성애 반대자에 대한 역차별적 용어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병든 자로 보이게 하는 1960년대 후반 심리학자들과 동성애 활동가 바인베르그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혐오증은 병리학적으로 취급되는 신경적 공포이다. 정신분석을 동원하여 바인베르그는 동성애를 향하여 강박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의도했다. 바인베르그는 정상인들이 표시하는 인간학적, 심리학적, 의학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동성애 거절에 대한 사려 깊은 거부를 ‘동성애 혐오증’이라는 포괄적 용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엄마, 아빠라는 용어를 없애려 한다.

어로써 정죄했다. 그리하여 ‘신경 공포증’으로 분류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매일의 상호행위에 있어서 욕하거나 거절의 난폭한 형식조차도 동성애 경향의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낙인찍었다. 젠더 주류화 운동가들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입만 벙긋해도 혐오발언이라고 몰아가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떠한 거절이나 욕설조차도 차별로 보아 ‘동성애 혐오증’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동성애 반대자들은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하여 젠더 주류화 운동가들은 동성애 반대자들이 동성애자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이들의 인권을 터부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퍼붓고 있다. 따라서 반동성애 운동에 있어서 동성애 행위인 죄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인격체로서의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과 너그러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청된다.

결혼과 가족 개념의 왜곡과 붕괴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과 가정을 부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에게 결혼과 가정이란 용어들은 그 보편적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사이의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공적인 유대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오늘날 가족의 넓은 범위가 등가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 사이에는 각양각색의 가족들, 단일 양친 가족들, 무지개 가족들, 왕자와 왕자가 결혼하는 유치원 그림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은 깨어진 결혼 가족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트랜스젠더의 배우 같은 외모, 커밍아웃하는 동성자애를 영웅시하는 언론 보도 등)에 영향을 받은 자들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과 특히 아이들에게 미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들을 숨기고 있다.

동성애자에서 전환한 김정현은 다음같이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로

절대고독과 외로움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드는 동성애자는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인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찜질방을 해매고 향문이 다 늘어나 변을 질질 흘리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나타날 생명윤리적 문제점도 심각하다. 독일 반동성애 여성운동가 쿠비는 “최근 인공수정의 발달로 각각 난자와 정자를 구해 인공배양을 시킨 뒤 모친과 교감도 없는 배아를 후진국의 대리모를 통해 위탁 임신시키고 있다. 그렇게 출산한 아이는 대리모가 놓고 가면 두 남자가 아이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비는 “만약 결혼의 정의에서 생명잉태를 빼내면 근친간, 수간 등의 성욕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성욕이 만약 극대화되면 어린 아이를 성적 도구화 하고 성전환수술을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엄마, 아빠 개념 왜곡, 부모1과 부모2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 사이에는 ‘성차별주의자 고정관념(sexist stereotypes)’을 없애기 위한 격노 속에서 엄마 용어가 사라진다. 2010년 6월 스위스 사회주의자요 유럽연합의 회원인 도리스 스톱프는 미디어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 수동적이고 열등한 존재, 어머니 또는 성적 대상으로 그려지지 못하도록 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스코틀랜드 국가 보건소는 엄마 아빠 용어는 유치원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가 동성 부모에 대한 차별을 하기 때문으로 본다. 스위스 연방총리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용어를 ‘부모’ 같은 젠더 중립적 용어로 대체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불려질 때 이들은 강한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자들이 언어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는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1, 부모2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엄마 아빠 용어를 성중립 용어(부모1, 부모2)로 대체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이다. 어린이의 입에서 처음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단어인 엄마, 아빠라는 용어가 인위적으로, 그것도 동성애자들의 그릇된 병적 관습으로 인해 없어져야 하는가? 동성애 부모는 아기를 가지려는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리 엄마를 얻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대리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결손 부모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이다. 부모의 잘못된 성 정체성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모든 아기들이 그 생명을 빛지고 있는 엄마는 존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아이가 왜 대리엄마에게서 태어나야 하는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아이들로부터 엄마 아빠 용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치료될 수 없다?

동성애 추종자들은 동성애는 치료될 수 없으며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결과의 산물이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게이 행동주의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온갖 협박과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재원의 고갈로 거의 함몰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논란 끝에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는 삭제되었다. 그 후로 미국심리학회회가 이를 그대로 따른 데 기인한 것이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서구에서 동성애는 정신병이자 범죄였다. 그러나 1968년 68혁명과 함께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은 미셸 푸코 등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이 전통적 가치를 붕괴시키고 성혁명을 시도하면서 동성애 합법화를 시킨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21건의 동성애 치료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료들은 폐기되었다고 한다.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동성애자 들협회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2015년 동성애를 합법화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에는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사례를 수기(手記)로 밝히고 치료도 받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요나 목사를 중심으로 2014년 11월 14일 홀리라이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선민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 개최됐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는 모임은 많았지만 동성애에서 벗어난 이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되었다. 사람이 동성애라는 치욕적인 죄의 사슬로부터 회복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확실한 인권 회복이다. 이들은 “동성애 회복 힘들어도 동성애자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쉽다”고 고백한다. 이들이 자신의 과거의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인정을 받고 탈동성애자들끼리 유대를 형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인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속)

특집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선교지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만나는 아주 특별한 행복

2018년 선교헌금 작정을 앞두고 온누리교회 선교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는 선교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다. 일본과 스리랑카에서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이들이 편지를 적어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보낸 크리스마스

다신(多神)의 나라인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거리 곳곳에 화려한 트리와 장식을 내걸고 캐럴도 틀립니다.

일본 교회들은 크리스마스를 전도하기 가장 좋은 기회로 여깁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교회마다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느라 매우 분주합니다. 예쁘고 정성스럽게 만든 전도지를 이웃들의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나갑니다. 평소 같으면 전도하기 힘든 가족과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11월 8일부터 일본 규슈 구마모토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온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는 지난 12월 8일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구마모토 하베스트교회와 함께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구마모토 형무소는 중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수감자 490여 명 중에서 25%가 무기징역수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사회로 다시 나올 희망이 없습



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희망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구마모토 형무소로 향했습니다.

처음 형무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을 때 수형자들끼리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서 참석했던 성도들이 매우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형무소 분위기가 매우 쓸쓸스럽고 스산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강당에 마련된 무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수형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수형자들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범죄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흉악하고 무섭게 생겼을 줄만 알았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들이라 약간 놀랐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기 때문인지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 여성 크리스천 가수 ‘미와가’가 간증을 하고 찬양을 이어 갔습니다. 미동도 없던 수형자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명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카무라 목사(구마모토 하베스트교회)가 사랑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자 강당에 있던 수형자 130명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형무소의 죄인들과 나는 얇은 종이 한 장 차이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사 43:6,7).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돌이키면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취질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재석 선교사(일본)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의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피터권 선교사입니다. 스리랑카의 ‘가네몰라’라는 시골에는 온누리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15년 전 선교사들이 야자수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어느덧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과정까지 갖추고, 학생 366명이 다니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온누리국제학교는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온누리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3~19세인데 복음화율이 0.4% 이하인 싱할라족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적어도 10~15년 동안 1년에 7~10회 이상 복음에 대해 듣고, 기독교 리더십과 가치관 속에서 성장합니다.

방학을 앞둔 12월에 전도집회 ‘Joy To The World’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Joy To The World’는 학생, 교사, 직원들의 가족, 마을주민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집회입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생겨서 올해



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영어예배공동체(OEM)에서 이 전도집회를 섬기기 위해서 스리랑카까지 날아왔습니다. 선생님들과 OEM 성도들이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을 전도집회에 초청했습니다.

전도집회 당일, 천여 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비가 쏟아졌는데 그 덕분에 시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전도집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온누리국제학교가 15년 만에 첫 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했습니다. ‘수다라’와 ‘마히마’ 학생이 졸업했는데 그 학생들은 스리랑카의 대학입시과정인 A레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수다라는 4개 과목에서 1등을 해서 스리랑카 신문에도 이름이 났습니다. 수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은혜를 꼭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다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히마는 학교가 집과 같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전국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수재인데 대학진학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온누리국제학교가 아니고는 주민, 학부모, 선생님, 가족,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선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온누리국제학교는 스리랑카에 신실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리더를 양성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콜롬보 등지에는 부유층 자녀와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좋은 국제학교가 많지만 학비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온누리국제학교의 학비는 콜롬보의 국제학교들보다 저렴하고, 목회자 자녀와 고아, 편부모 가정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학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피터권 선교사(스리랑카)

전도의 황금어장

2017 크리스마스



성탄콘서트 ‘선물’ 지난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수요목양예배가 주최하는 2017 성탄콘서트 ‘선물’이 막 올랐다. 이날 콘서트에서 서빙고 찬양인 도팀은 연합과이어 ‘왕이 나셨다’, 서빙고 예꿈 뮤지컬팀은 뮤지컬 ‘사랑’, 온누리워십과이어는 합창 ‘영광의 성탄선물’을 선보였다.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일본어예배 전도집회

“하피바스테- 예수사마”(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지난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경찬홀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일본어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일본어예배부가 ‘패밀리 크리스마스’ 집회를 개최한 것. 이날 경찬홀을 가득 채운 일본인과 한국인 성도 300여 명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 되었다. 패밀리 크리스마스 집회에서는 일본어예배부 파푸스(초등학생)와 푸치파푸스(취학 전 어린이)의 깜찍한 율동과 찬양, 한글강좌(이촌동 거주 일본인들)에게 한글과 복음을 전하는 강좌) 수강생들의 한국

어 찬양, 재미있는 게임 등이 이어졌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는 ‘예수님의 하피바스테이’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자 문순영 자매는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고, 배수영 자매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기로 기도했다”고 말했다. 신승재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인종도 문화도 상관없이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광화문 기도집회 “주여, 나부터 회개 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지난 12월 21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오직 말씀으로, 나부터 회개와 기도’를 주제로 열 기도회에서 자신의 죄, 교회,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KIBI 송년의 밤 행사

KIBI가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한해를 마무리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KIBI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종길 목사, 송만석 장로, KIBI 사역팀, 후원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박종길 목사의 축사, 2017년 사역보고, 송만석 장로의 격려사, 뮤지컬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길 목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KIBI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고, 송만석 장로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사역하자”고 격려했다. KIBI는 올해 살람 예루살렘, 요셉 술람 초청 세미나, IBS, 예루살렘 기도모임 등을 진행했다.

2017년 엔젤트리 후원율 100%

사연 2,272건 모두 후원자와 연결

2017 엔젤트리 후원율 100%를 달성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2017 엔젤트리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총 2,272건의 사연이 접수됐고 모든 사연이 후원자와 연결됐다. 후

원자가 너무 많아서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마감했을 정도였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의정부 낮은울타리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예쁜 옷과 책상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섬김에 감사합니다”

서빙고 여성사역, ‘간사블레싱’ 개최

지난 19일, 서빙고 여성사역이 ‘간사블레싱’ 행사를 열고 간사들을 섬겼다. 간사블레싱 행사에서는 식사와 선물 나눔, 포토존, 다양한 게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성도들이 간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기증해 훈훈함을 더했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

늘 수고하시는 간사님들을 격려하고 싶었다”면서 “간사님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다”고 말했다. 고경미 간사는 “간사들을 섬겨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감격했다”고 했고, 민선혜 간사는 “정성 가득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서빙고 여성사역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CGNTV 임직원 사랑의 연탄배달

경기도 광주 이웃들에게 연탄 6천 장 전달

CGNTV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했다.

지난 12월 14일 경기도 광주에서 이용경 장로(CGNTV 대표)를 비롯한 CGNTV 전체 임직원들이 연탄 6천 장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용경 장로는 “한 겨울에도 난방

을 제대로 못하는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CGNTV는 지난해부터 연말마다 사랑의 연탄배달을 실시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양지 이주민사역팀 팀원모집

한글교육, 노방전도, 차량운행 사역

양지 온누리교회 이주민사역팀에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성도들을 찾고 있다. 양지 이주민사역팀은 한글교육, 노방전도, 차량운행, 식사교제, 한국정착도우미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는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임연혁 팀장(양지 이주민사역팀)은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다”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문의: 031-331-8171

CGNTV 세라핌합창단 정기연주회

CGNTV 세라핌합창단이 제1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세라핌팔레스톨에서 막 오른다. 합창과 핸드벨 연주, 한국민요메들리, 부채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CGNTV 세라핌합창단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4043-7390

열린새신자예배

공정환 820416
변설희 910730
정지호 900909
최윤호 791103
최혜윤 880131

유아
공예린 160518
공정환 김지은
김혜인 160128
김은재 엄자경

■ 온누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박명화 성도(성북공동체)

복음 전하는 자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던 주일이였다. 어느 권사님께서 내게 다가와 온누리 전도학교로 초청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고 부끄러움이였다. 온누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았다. 온누리 전도학교 덕분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

온누리 전도학교 강의와 간증 나눔이 정말 좋았다.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전도의 열정을 보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 생겼다.

한번은 조원들과 함께 용산역으로 전도를 하러 갔다. 전도지를 가지고 짝을 지어 복음을 전했다. 막상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했고 거절을 당할 때는 당황하기도 했다. 그

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담대해졌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사역지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도를 하다 보니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다른 종교가 있어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온누리 전도학교의 모든 시간은 새롭게 다가왔고, 신앙을 재정립 하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도학교 사역자로 섬기면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 남양주 와이미션 수료 간증



/ 김태은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선교와 하나님

7주 동안 ‘와이미션’ 강의를 들었다. 처음에는 와이미션이 어떤 과목인지 잘 몰랐다. 단순히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강의 중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는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편안히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집사님들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와이미션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 같다.

와이미션 첫날,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은 듣고 반은 흘려들으며 첫날 수업이 끝났다. 다행히 두 번째 수업부터는 강의 내용이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선교는 하나님께 큰 뜻을 받은 사람, 큰마음을 품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와이미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기독교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전혀 몰랐던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들었고,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선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속한 곳에서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하게 됐다. 무엇보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양화진에 갔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순종과 기도, 믿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묵상할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들의 눈물과 피가 진짜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반성도 했다. 나는 그동안 편안하게 지낼 생각만 했다.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생각하고 반성했다.

양화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와이미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선교와 하나님에 대해 색다르게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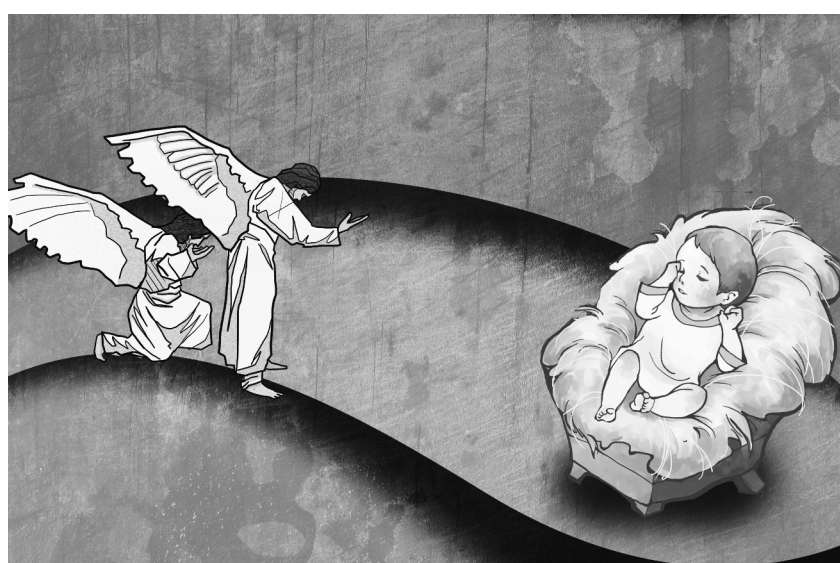
신앙에세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은 사회,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흩어진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로마의 통치를 차례로 겪으면서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어적 혼란을 겪어야 했다.

무엇보다 알렉산더가 심은 개방적인 헬라 문화는 엄격한 헤브라이 문화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고, 결국 마카비 봉기와 같은 유헤 사태를 불러왔다. 이스라엘 사회는 선지자들의 외침(“들으라 이스라엘”)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는 말라기 이후 400년간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마지막 예언의 성취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쓰러뜨린 영웅 엘리야(말 4:6)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에서 양떼를 지키던 소수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던 그들에게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들의 칸타타도 하라해 주셨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3~14).

당시 목동은 사회 기득권층인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들에 비해 낮은 계층이었다. 양을 치는 이스라엘 사회는 주변 나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창 46:34). 그러나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 목자들은 소란하던 사회에서도 자신의 양을 지키고 있

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인 한밤중에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못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찬양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찬양은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다. 미국인이 최초로 지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 에드먼드 시

어즈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뒤 목사가 되었고, 웨일랜드와 웨스턴의 작은 시골에서 목회를 했다.

이 찬송시는 1849년 처음 발표되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남북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때 이 찬송가는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성탄 메시지가 되었다. 특히 4절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는 당시 암울한 사회에 희망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우리 한국도 혼돈과 혼란 속에 지진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다. 뉴스는 매일 소란스러운 소식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바란다.

이 겨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으로 임재하시기를 소망한다.

이민욱 목사
(찬양사역공동체 담당)

예수 그리스도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

〈13면에 계속〉

의심의 웃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19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사라에게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의심하는 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져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네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창 18:10-15).

아브라함과 사라의 공통점은 계속 웃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세상 문화와 시각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셔서 원하지도 않는 자손을 계속 주신다고 했을까요. 왜 불신앙이요,

의심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시각, 과학적 법칙, 물리적 상태 등과는 정반대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그때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과거의 웃음이 아닙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속에 있는 불신이 씻겨 내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이 사라지고,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웃는 웃음입니다. 그들의 모든 상처를 씻어 내리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웃을 줄 알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창 21:6).

‘이삭’은 히브리어로 ‘있츠하’(의성어)입니다. 입을 벌리고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짹 벌려서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웃음을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였는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따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헌신이 가능한 것은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 의심, 비웃음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활짝 웃는 크리스마스

첫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구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은 그 약속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모든 약속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셋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통해 세우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이삭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넷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후손이 올 것을 바랐고, 기대했고, 그 후손이 태어남으로 활짝 웃고 기뻐했던 것처럼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웃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생명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사라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영원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속으로, 역사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약속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활짝 웃으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기뻐했던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도 바라고, 기뻐하고, 활짝 웃는 크리스마스가 되

두란노 신간

돌이키면 살아난다



〈은혜가 이긴다〉
이재훈 지 | 두란노 | 15,000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며 이재훈 목사가 신간 〈은혜가 이긴다〉를 펴냈다. 이 책은 ‘2016~2017년 온누리교회 작은예수 40일 새벽 기도회’에서 이재훈 목사가 전한 메시지를 엮었다.

당시 이재훈 목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설교했다.

이재훈 목사는 예언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예언서를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죄인 된 우리의 허물과 추함이 커다랗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찾아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훈 목사는 이 시대를 예언자들이 외치던 마지막 때에 가깝다며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인생의 잔에 죄가 가득 차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을 덮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어느 성도라도 예언서를 기본 좋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죄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참혹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들을 때 양심이 깨어나 우리의 영혼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마련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만일 예언서에 나타난 경고와 심판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읽고 듣는 성도는 회개를 통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거룩

한 삶으로 회복하게 된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로부터 비롯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 대의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것이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예언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남 얘기하듯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예언자들의 외침대로 죄의 길을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

이재훈 목사의 신간 〈은혜가 이긴다〉가 이 시대를 향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의 구도자가 되어줄 것이다.

CGNTV 특집단막드라마

다시 봄^春

한 영혼을 따뜻한 봄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첫 방송 12월 25일(월) 오후 10시 40분

재방 12월 27일(수) 오전 8시 20분



주연 배우



황선희(주인공 최보라役)

“엄마...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성병숙(보라母 여해옥役)

“너희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오시니?
심방 간 사람이...”



심지호(교회동생, 윤창우 전도사役)

“이 길 걸을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



서태화(보라父, 최봉길 목사役)

“보라야, 아빠 다녀올게”

SYNOPSIS

어린 시절, 뜻밖의 사고로 목사였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이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났던 주인공 보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찾아 19년 만에
옛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다시 봄> 교회 상영 안내

서빙고	12월 25일 오후 2시	부천	12월 25일 오전 10시 15분
양재	1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12월 25일 오후 2시	남양주	12월 25일 오후 12시 30분
평택	12월 25일 오후 1시	강동	12월 25일 오후 1시 30분
인천	12월 25일 오전 10시	양지	12월 31일 오후 9시 30분

